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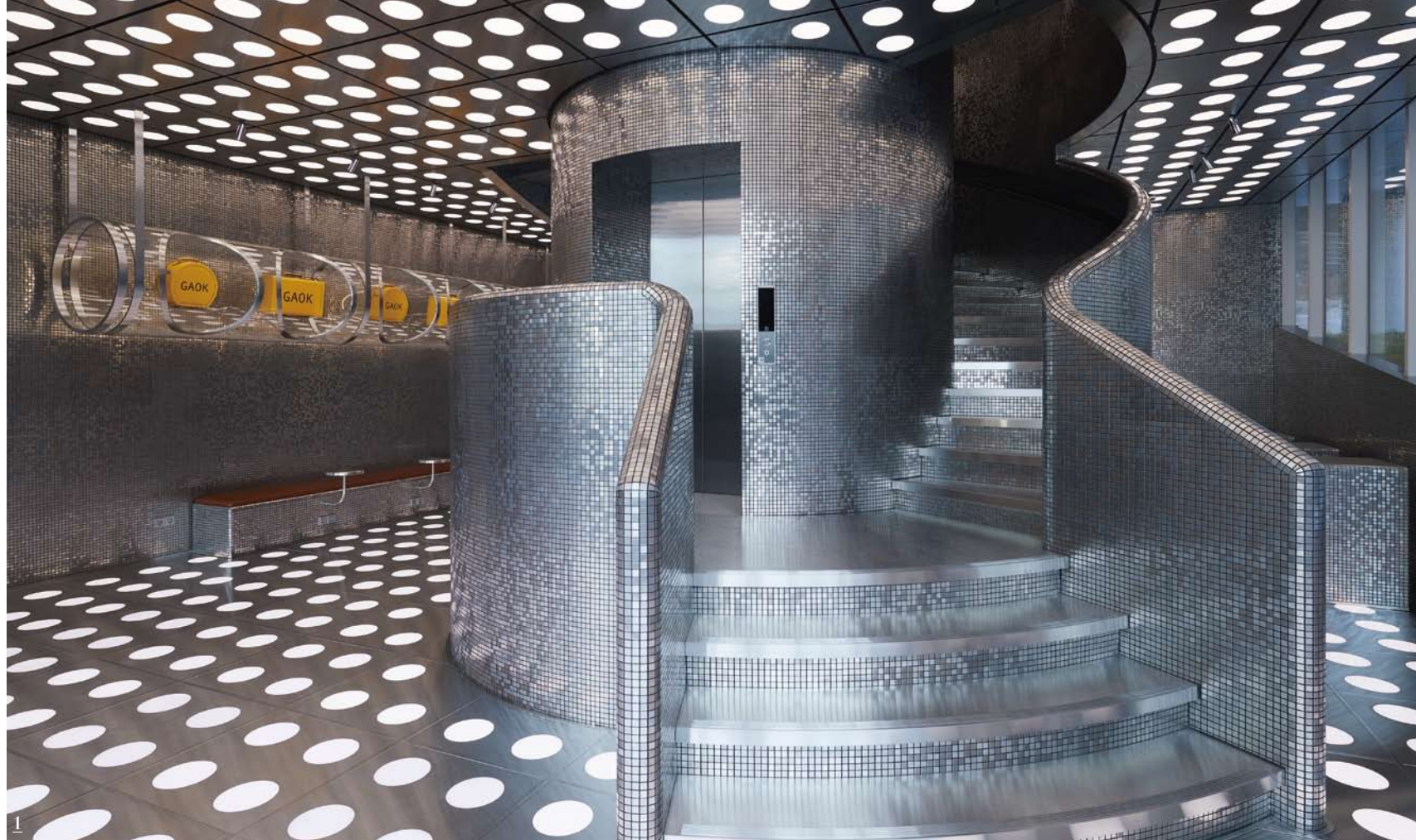
Style 1 조선일보

SUMMER 2021



GUCCI





1 1970년대 '팝' 감성을 입은 인테리어. 2 GAOK(가옥) 레터링을 프린트한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3 은빛 모자이크 벽 속에 숨겨진 프라이빗한 피팅 룸. 4 남성을 위한 피스루 라인 2층. 5 레디투웨어에서 핸드백, 슈즈, 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구성된 3층 여성 매장. 6 벨벳과 목재 소재로 디자인한 화려한 의자와 카펫을 배치한 VIP 룸. 7 가옥 전용 스파셜 패셔닝 서비스. 8 파사드에 구현된 박스모 작가의 숲을 인테리오는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한 토니 린의 아트 월. 9 남성 DIY 제품과 테이블링 상품군을 만날 수 있는 맨즈 VIP 룸.

가옥, 家屋 Gucci Gaok

따스한 기운이 배어든 청명한 어느 봄날 정오 무렵, 구찌가 보내온 한 장의 초대장에는 익숙한 한글로 가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우리나라 전통 주택을 의미하는 가옥(家屋)은 구찌 최초로 로컬 이름을 내건 플래그십 스토어로, 서울에서는 두 번째이자 이태원에 새롭게 등지를 든 공간이다. 자기표현과 개성을 중시하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의 철학이 돋보이는 구찌. 이태원에 자리한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은 한국의 전통 주택이 주는 고색창연한 멋과 구찌만의 컨템퍼러리한 감성이 더해져 새로운 랜드마크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국적 정서와 1970년대 디스코를 아우르는 정체성

시선이 어디로 향하건 서울에서 가장 흥미로운 공간으로 꼽힐 이태원에 위치한 구찌 가옥은 지구상에서 가장 동시대적인 시대상을 보여준다. 우리말로 '집'이자 한국 전통 주택을 의미하는 이 공간은 구찌 최초로 로컬 이름을 내건 플래그십 스토어. 그동안 도시나 거리 이름으로 매장 이름을 짓는 경우는 많았지만, 한 나라의 전통 주거 명칭을 이름으로 삼은 것은 100년 구찌 역사상 최초다. 관계자는 "한국의 '집'이 주는 고유한 현대 문화를 담아 방문객들이 편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꾸리고 싶었다"라고 전한다. 한남오거리에서 대사관로 방면 언덕을 지나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

는 '구찌 가옥'은 박스모 작가와 협업해 완성한 거대한 외관의 파사드에 스테인리스 스틸로 구현한 숲과 나무로 이뤄진 자연 풍경을 눈앞에 펼쳐 보인다. 구찌는 우리를 숲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것인가? 한 폭의 동양화처럼 외이어 중첩을 통한 명암의 대비로 구현한 한국적 분위기를 풍기는 외관과 달리 내부에 들어서면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는 화려한 메탈릭 향연과 마주하게 된다. '구찌 가옥'에 들어서선 순간 방문자의 시간은 멈춘다. 1970년대를 빛낸 전설적인 디스코 클럽 '스튜디오 54'를 연상시키는 관능적인 공간이 내면에 잠자던 흥을 끌어올린다.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여행자의 기대

가 호기심으로 더욱 증폭되듯, 가히 예측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서울에 거주한다면 그의 공간은 이런 느낌일까? 오랜만에 마주한 신선한 자극에 다른 시공간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본원적인 환상, 구찌 가옥(GAOK)

환상적인 조명 아래 매혹적인 은빛 색조를 드러낸 1층 로비에서는 먼저 'GAOK' 레터링을 입은 다양색의 익스클루시브 라기지 캡슐 컬렉션이 방문객을 반긴다. 이를 지나 계단 옆 오른쪽에 다다른 유니크한 상단 투명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이끌고, 내부를 관통하는 나선형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면 남성을 위한 공간이 펼쳐진다. 남성 레디투웨어는 물론 하우스의 유서 깊은 테일러링 라인과 이니셜, 패치, 안감 등 퍼스널라이즈가 가능한 DIY 피스들이 반긴다. 3층에 올라서면 주얼리 컬렉션이 고객을 맞이하는데, 이는 국내 매장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프리미엄 파인 주얼리 라인으로, 구찌만의 우아하고 독보적인 디자인을 품은 주얼리 피스들이다. 여성 고객을 위한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비롯해 구찌 홀스빗 1955 핸드백부터 클래식 홀스빗 슈즈 라인, 그리고 크고 작은 액세서리까지 폭넓은 제품군으로 구성했다. 물론 여성을 위한 프라이빗한 샵룸도 준비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4층에는 최신 컬렉션 제품을 비롯해 시즈널한 무드를 과감하게 보여주는 여성 및 젠더리스 피스를 믹스 매



치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구찌 고유의 헤리티지 패턴을 입은 플레이트와 티 포트 등 다채로운 테이블웨어(tableware)까지 경험할 수 있다.

공간에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다

박스모 작가의 작품을 외관으로 품은 '구찌 가옥'은 단순히 쇼핑 공간을 넘어 예술·문화적 경험까지 충족시킨다. 3층 공간 한쪽 벽면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발하는 아트 월은 초현대적인 작업으로 알려진 미디어 아티스트 토니 린(Tony Lim)이 작업했다. 파사드에 구현한 박스모 작가의 외이어 메시 작품을 3D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로 재해석해 LED 스크린에 구현했으며, 외관과 내부 공간이 아트 월을 통해 연결되는 매력적인 구성을 이룬다. 작품은 인테리어 월에 사용된 타일과 동일한 이미지로 시작되는데, 이어 타일 모티프가 점차 외이어 메시 형태로 변형되고, 화면 앞에서 있는 고객과 매장 인테리어가 메시 모티프 사이로 중첩되면서 고객의 움직임이 스크린을 통해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LED 스크린에 비추지는 모습은 다양한 레이아웃과 장면으로 연출될 예정이며, 공간에 보다 역동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고색창연한 아름다움을 품은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

가옥이란 이름에 걸맞게 한국적 정서가 깃든 인상적인 콘텐츠가 신경을 자극한다. 한국 전통 '색동' 문양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바이오테라 캡슐 컬렉션은 이탈리아 특유의 장인 정신과 고색창연한 한국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다. 여기에 가옥(GAOK) 레터링을 프린트한 라지와 레더 소품, 고유의 파이톤 트리밍 장식이 매력적인 구찌 홀스빗 1955 핸드백까지 오직 '구찌 가옥'에서만 만날 수 있는 신선한 익스클루시브 캡슐 컬렉션이 고객을 맞는다. 어느 매장에서든 경험할 수 없는 구찌 가옥 전용 패키징도 인상적이다. 전통 보자기와 노리개를 활용한 스페셜 패키징 서비스는 미감까지 충족시킨다. 이렇듯 한국적 정서와 자유분방한 1970년대 디스코 정신, 예상 외의 두 요소를 조화롭게 버무린 공간 덕에 이태원은 더욱 생기를 띠게 될 듯하다. 이태원을 찾는다면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들어온 듯 박스모 작가가 구현한 흑백 숲이 우거진 '구찌 가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춰도 좋을 듯하다. 문의 1577-1921 에디터 이지이



가옥, 전통과 파격, 재창조가 공존하는 신개념 문화공간의 탄생

올해로 창업 100주년을 맞는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가 서울 이태원에 격식과 고정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구찌 가옥(GUCCI GAOK)'을 선보인다. 다양성에 대한 철학과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실험적 시도로 채워질 가옥이 수행할 진정한 복합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우리는 지금 진부한 관습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진취성, 성장과 변화를 위해 기존 아이디어를 버리는 용기,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시신을 멀리 두고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 등 경계를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실험이 끊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개인적으로 여행 중 큰 감동으로 다가온 공간이 꽤 있었다. 전사와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자리에서 미술, 발레,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이 작품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지켜볼 수 있는 마나 컨템퍼러리(Mana Contemporary). 문을 열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미국 뉴저지주의 문화센터로, 구석구석을 파격적인 예술의 흔적으로 채운 그곳을 방문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 뉴욕에서 오랜 식용유 공장을 개조해 만든 갤러리이자 클럽 '파브리카 데 아르테 쿠바노(Fábrica de Arte Cubano)'가 있다. 전시장 한복판에서 작가와 관객 사이 즉흥 예술 품 거래가 이뤄지는가 하면, 비디오아트 작품이 배경으로 흐르는 가운데 재즈 공연이 펼쳐지고, 바로 옆 공간에선 연극이 한창인데, 반대편 문을 열면 모히토를 마시며 달빛 아래 춤추는 사람들이 모인 야외 클럽이 있는 것을 보고 받은 신선한 충격이란! 격식과 고정관념을 파괴함으로써 새로운 장르의 예술을 탄생시키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열광과 영감의 씨앗을 고집어내는 공간을 발견하는 일은 단연 여행의 큰 즐거움 중 하나다. 그런 공간을 볼 때마다 서울에도 이런 곳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새로운 시도와 고집만 도전이 어려운 진공을 좋아하는 내게 얼마 전 가옥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일찌감치 다양성과 '경계 허물기', '현경문제' 등에 앞장서온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GUCCI)가 지난 2년간 실험을 기울여 의미심장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고, 드디어 서울에서 선보일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를하여 구찌 가옥(GUCCI GAOK)! 명품 숲은 창립동예 다 모여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국내 최초로 서울 강북 지역에 들어서 플래그십 스토어인데, 여러 면에서 기존 틀을 확장한 개념을 담아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역사 깊은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구찌는 올해로 창업 100주년을 맞았다. 그림과 이심 차게, 또 정성을 다해 준비한 프로젝트로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이곳은 우선 장소 선정 배경이 흥미롭다. 구찌는 세계적인 트렌드 리더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수도 서울,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문화 허브로서 상징성을 갖는 이태원을 선택했다. 이태원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사람들의 인성이 녹아 있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기풍을 지닌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활기가 넘치는 곳이다. 서울에서 다양성과 공존의 문화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역이면서 품격 높은 갤러리와 고급 주택가, 소박한 길거리 문화가 한데 녹아 독특한 서브컬처가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사실 이태원은 역사적으로도 다양성의 중심에 선 허브 역할을 해온 곳이다. 조선시대 한양으로 통하는 가장 빠른 길로 여겨져 항상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북적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태원의 정체성은 새롭게 정의된 것이 아니라 기존 정체성이 글로 발한 스케일로 확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태원은 오랜 세월을 겪는 동안 한반도의 이모저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양의 대에서 수차례 탈바꿈하는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서울 시내에서 가장 대조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는, 명실상부 역동적이고 새로운 기회의 장소로 자리매김했는데, 이것은 구찌가 추구하는 정신과 통한다. 구찌의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드로 미켈레(Alessandro Michele)는 자기 표현을 극대화하는 미학을 캠페인, 패션쇼 등을 통해 선보여왔다. 럭셔리 브랜드 사이에서 구찌가 눈에 띌 수 있었던 것은 포용성을 내세우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세대와 가치를 아울러 여러 층에 어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이태원이 품은 정신이나 시대적 요구와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요소다. 그런가 하면 구찌가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 이름으로 선정한 '가옥'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이 특별하다. 가족이 한데 모여는 편안한 장소이자 사랑하는 이들이 담소와 음식을 매개로 나눔을 경험하는 곳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와 자존심의 브랜드 구찌는 이태원에서 즐거운 경험을 선사하고 정성 가득한 환대로 고객을 대하겠다는 의지를 이 공간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 않고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이름의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모두 인간적인 교류와 만남을 그리워하고 있기에 이런 공간의 탄생이 더욱 반갑고 크나큰 위로로 다가온다. 구찌의 가옥이 매력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옥이라는 단어에서 풍기는 고풍스러운 느낌과 달리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될 공간은 모던하고 트렌디한 클럽을 연상시키는 현대적인 모습으로 꾸며진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 자체는 누구나 다정한 환대를 받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적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관철자 입장에서 벗어나는 직접 체험과 뉴 디지탈 테크놀로지 개념을 혼합 적용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신선한 경험 또한 고객을 위해 열려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공간의 첫 얼굴은 한국적 미(美)와 자연의 숨결을 모티브로 한 파사드. 박승모 작가와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하나하나 정성 들여 완성한 외관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예술적 감동을 극대화한 이태원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은 '구찌 가옥'의 파사드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자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멀리서 건물을 바라보는 이들에게까지 감동을 전하는 파사드에 대한 발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찌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의 중심에는 '상상'과 '공존'이 있다. 럭셔리 주택가와 미술관, 젊음을 불태우는 청년과 사민의 차열한 삶이 교차되는 절묘한 위치에 '구찌 가옥'이 들어서 배경에는 이탈리아 정통 브랜드로서의 자존심과 아이덴티티, 한국적인 느낌을 담은 공간으로서 모든 틀을 깨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포용 및 흡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교류와 공존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 단순한 스토어가 아니라 진정한 문화 허브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혁신을 향한 구찌의 끊임없는 노력과 일맥상통한다. 파격과 재창조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어, 누구나 한 번 보면 반드시 다시 찾게 되는 '집' 같은 곳, 그러나 매년 새로운 발견이 가능한 신개념 공간. 그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구찌 가옥이다. 무엇보다 구찌 가옥이 재미와 즐거움으로 가득한 곳이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움을 선사할 구찌 가옥은 쇼핑을 위해 잠시 찾는 장소와는 완전히 다르다. 최고의 서비스와 미래 기술을 도입해 하이브리드한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콘셉트와 공간의 구성 및 레이아웃, 디자인, 운영 시간과 방식에 이르기까지 파격과 탈고정관념으로 채워질 구찌 가옥은 말 그대로 신개념 문화 허브로서 서울, 나아가 세계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지 않을까. 진정한 의미는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전통적 가치 위에 한국적 가치와 역동적이고 모던한 감각을 쌓아 올린 구찌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구찌 가옥을 곧 만나게 된다. 반갑기 그지없다. 관행과 새로운 관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 우리의 지친 마음을 안아주고 영감을 제공할 이 근사한 문화 허브는 많은 이들의 영혼에 위안을 선사할 것이다. 글 손매사작가

이태원 이태원

환(幻), 실재와 허상의 경계에서

‘숲과 나무’를 주제로 한 이태원 구찌 가옥(GAOK, 家屋)의 황홀한 외관이 공개되었다. 서울의 중심, 이태원에 작은 숲을 탄생시킨 박승모 작가에게 협업을 하면서 느낀 소감과 진행 과정, 예술 철학에 대해 물었다.

탐색이, 우연한 발견이 모든 것이 멈춘다. 박승모 작가의 작품을 품은 구찌 가옥을 보며, 숲을 상상해본다. 할 말을 잃는다. 문명화된 세상에서 이보다 아름다운 곳은 없다는(이미 알고 있지만 잠시 잊은)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위대한 도시처럼 위대한 작품은 오직 각자가 품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 투영되는 그 무엇인가를 찾게끔 도와준다.

Q 작가의 작품을 품은 구찌 플래그십 스토어라... 소감이 어떤가? 감격스럽다. 창업 100주년을 맞은 이탈리아 브랜드가 이태원이라는 특별한 공간에 한국적 요소를 녹여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 내 작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Q 이번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가? 환(幻)이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작품은 허상이 아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본떠 만들었지만, 이 작품이 과연 실재라고 할 수 있을까? 실재와 허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참나를 표현했다. 무엇보다 상상의 숲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번 작업을 구상하면서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환경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왔다. 숲과 나무를 모티브로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 사라져버릴 수 있는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Q 구찌 가옥(GAOK, 家屋), 파사드 작업은 어떻게 진행했는가? 이 작품은 수많은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의 중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패널은 13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다. 연필로 데생을 할 때처럼 칠하기 겹치는 정도를 통해 명암의 대비와 농도를 조절하며 이미지를 표현했다. 레이어 두께로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만든 패널 100여



1 박승모 작가의 작품이 드러낸 구찌 가옥의 거대한 파사드. 2 구찌의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파사드를 작업한 박승모 작가.

개가 모여 구찌 가옥 파사드를 완성했다. Q 감상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듯하다. 감상 기준은? 맞다. 작품을 잘 감상하는 기준은 사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미지가 사라지니까. 그때 보이는 것이 실제인지 허상인지 고민할 수 있다면 좋겠다. Q 그렇다면 작품을 감상하는 이에게 바라는 시선이 있는가? 무위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한다는 뜻을 지닌 관(觀)의 시선을 바란다. 이는 수행법 중 하나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주시하고, 마음을 한곳에 집중해 산란을 멈추고 평온한 상태에서 대상을 응시하는 것이다. 빛과 그림자의 상호작용으로 이미지를 드러내는 이 작품은 조명이나 기후, 계절적 변수 같은 외부 요인에 따라 이미지의 디테일이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한다. 작품 자체가 자연과 상호작용해 유기적으로 변화를 지어내는 개방된 구조물인 셈이기에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대로, 작품이 일부분만 보여도 있는 그대로 환(幻) 자체를 받아들일 것 같다. Q 건물 4층 높이의 거대한 파사드에 작품을 구현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일 텐데, 작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는가? 내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는 빛이다. 그림자가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뒤에서 비추는 빛이 철사처럼 그림자를 드러우며 이미지를 강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파사드는 사실 해가 진 뒤 빛을 발한다. 해가 뜨기 전까지 조명을 통해 온전하게 볼 수 있다. 이번 작업은 외부 건물에 입히는 것이기에 조명이나 건물 방향까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설렘만큼 걱정도 많았던 작품이지만 이러한 변수가 오히려 이번 작품의 콘셉트와 더 적절하게 어우러졌다고 믿기에 기쁜 마음으로 구찌 가옥의 파사드를 선보인다. 에디터 이주이



이태원 이태원

보우 디테일의 화이트 플라워 패턴 셔츠 2백만원, GG 수프림 베이저-알티잡러 캔버스 코트 5백40만원, 라이트 그린 비스코스 플라츠스카트 2백40만원, 블랙 자카드 구찌 로고가 특징인 화이트 샷스 23만원, 소재의 믹스 매치가 돋보이는 컬러풀한 베스킷 하이 탑 스니커즈 1백29만원, 구찌 가죽 익스클루시브 바이디테라 GG 수프림 라넨 스트링 백팩 1백83만원 모두 구찌.

NEW VIBES

새로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과 함께
이태원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은 구찌 가죽
익스클루시브 아이템, 그리고 오버추어 컬렉션.
photographed by lee jun kyong



보우 디테일의 블랙-아이보리 플라워 프린트 드레스 4백60만원, 체크 패턴 트윈드 재킷 4백50만원, 라이트 블루 패턴 글러브 48만원, 홀스빗 디테일의 옐로 스트로 스몰 숄더백 2백29만원 모두 구찌.



'GAOK(가옥)' 레터링이 감각적인 구찌 가죽 익스클루시브 GG 엠보스 옐로 핫 케이스 9백20만원 구찌.



올오버 플리즈 디테일의 원 솔더 핑크 실크 드레스 8백80만원, 구찌 가죽에서 먼저 만나볼 수 있는, 파이론 트리밍을 더한 핑크 컬러 구찌 홀스빗 1955 미디엄 토크 핸들 백 5백90만원 모두 구찌.



그래픽적으로 재해석한 G 패턴 프린트 카디건 2백60만원, 7층학적 패턴의 블루 플리츠스카트 2백40만원, 빈티지한 컬러 배리어이션이 돋보이는 구찌 홀스빗 1955 스몰 솔더백 3백90만원 모두 구찌.



보우 디테일의 화이트 플리워 새틴 셔츠 2백만원, 울오버 플리츠 디테일의 울리브 그린 새틴 미디스커트 2백75만원, 브라운 페이브 퍼 코트 9백만원, 체리 레드 울 베레모 46만원, 인터로킹 G와 필 장식의 폰보이는 이어링 60만원, 구찌 가죽 익스플루시브 바이아테라 GG 수프림 라지 토트백 3백40만원 모두 구찌.

울오버 새틴 양보로이더리를 다한 퍼플-멀티컬러 크롭트 톱 1백80만원, 그린-멀티컬러 크롭트 카디건 3백70만원, 그린-핑크 멀티컬러 팬츠 3백50만원, 더블 G 디테일의 골드 메탈릭 레디 미드힐 샌들 1백15만원, 골드 메탈 라운드 프래임 아이웨어 58만원, 플리워와 크로스 모티브의 메탈 이어링 62만원 모두 구찌.

문의 02-3452-1921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유해수
모델 엘라스
어시스턴트 배시현
진행 이혜미(객원 에디터)





오버사이즈 싱글코트 카디건
재킷으로 포인트를 준 카이.



화이트 미니드레스에 구찌 홀스뱃 1965
슬리퍼와 베레모로 스타일링한 한지민.

Be Gucci

구찌 가죽 오픈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셀럽들의 스타일링 팁.



보우 디테일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에
재킷 1961 미니 홀트 백을 더한 이지아.



G 패턴이 돋보이는 데일리로 재킷과
팬츠를 모자이크 매치한 차승원.

STYLEGOSUN.COM | 모든 상품은 판매처와 동일합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3 | 1108-7033 | 02-703-3339



라이트 블루 컬러의 스커트,
베스트, 카디건으로 통일한 선미.



대담한 패턴 티셔츠, GG 멀티 컬러 카디건,
스니커즈, 스몰 캔버스 슬리퍼백을 매치한 박재민.

One and Only

패셔너블한 남성을 위한 제안. 한국의 색을 구찌만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담아 유니크하고 다양하게 표현한 구찌 가죽의 익스클루시브 맨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반대 방향) 한국 가죽(Gaok) 매장 오픈을 기념해 제작한 스페어 형태의 각이 살아 있는 수트케이스. GG 로고 패턴을 담은 비비드한 그린 컬러의 레더로 유니크함을 더했다. 한창 베이스에 하우스 엠블럼을 양각으로 새겨 넣어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있는 가죽에 텍스처를 더한 것이 특징. 톱 핸들에는 대조적인 'GAOK'을 프린팅해 클래식함과 유니크함을 동시에 담았다. 9백90만원 구찌.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있는 가죽에 하우스 엠블럼을 양각으로 새겨 텍스처감을 더한 구조적인 세이프의 수트케이스. 비비드한 옐로 컬러로 클래식한 수트케이스에 위트를 더했다. 한국의 가죽(Gaok) 매장 오픈을 기념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으로서 장면에 볼래 컬러로 새겨진 'GAOK' 프린트는 시그니처 시인으로서의 임팩트를 부여한다. 1천2백만원 구찌.

화려한 색과 인트로딩 G 패턴이 돋보이는 시원한 소재의 가죽(Gaok) 매장에서만 구매 가능한 익스클루시브 컬렉션이다. 한국적인 색감을 창의적으로 담고 스타일리시한 패턴이 인상적. 같은 패턴의 팬츠와 함께하면 셋업으로 연출할 수 있다. 1백68만원 구찌.

구찌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한국 전통 '색동' 문양을 표현한 바이아테라 로우 톱스 카츠.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 캔버스를 바탕으로 구찌 테라스 1977 리본과 상징적인 GG 모티브, 클래식 웹 디테일까지, 다양한 구찌 하우스의 헤리티지 요소를 조화롭게 담았다. 1백52만원 구찌.

한국의 가죽(Gaok) 매장 오픈을 기념해 선보이는 바이아테라 벨트 백으로 한국 전통 '색동' 문양에서 영감을 받았다. 상징적인 GG 모티브와 멀티 컬러 스트라이프로 가죽(Gaok)만의 아이덴티티를 멋스럽게 표현했다. 리본 캔버스의 소재감과 크로스 보디 형태로 어느 룩이나 매칭하기 편하며 영한 감성을 부여한다. 1백62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에디터 **성정민**



GUCCI

가옥

NOW OPEN

GUCCI GAK
223 ITAEWON-RO YONGSAN-GU
SEOUL

